



특허청

#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8. 28.(일) 낮12시	배포 일시	2022. 8. 26.(금) 14:30
담당 부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제교육과	책임자	과 장 이현동 (042-601-4350)
		담당자	사무관 신정옥 (042-601-4365)

## 특허청, 아세안 국가에 지식재산 발전 노하우 전파한다

- 특허청·코이카, 아세안 국가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 시행(8.29~9.8)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아세안(ASEAN)\* 국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8월 29일(월)부터 9월 8일(목)까지 진행한다

\* 1967년 창설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구성

○ 이번 과정은 '20년부터 3년간 진행한 '코이카(KOICA) 글로벌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가 마지막 3차시에 해당한다.

□ 교육은 아세안 국가 중 7개국\*의 지재권 담당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식재산(IP) 가치평가 ▲한-아세안 지식재산(IP) 기반(인프라) 현황 비교 연구 ▲아세안 지식재산(IP) 조화 방안 등 아세안 국가의 지식재산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라오스

○ 특히, 지재권 창출·활용·보호분야 외에도 우리나라의 ①지식재산 발전경험 공유 ②위조상품 단속 ③지식재산 금융 및 가치평가 등을 주제로 한 과목들을 편성하여, 우리나라가 축적한 지식재산 분야의 발전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허청은 이번 교육과정이 교육 참여자들의 현업에 적극 적용되어 아세안 회원국 역내 케이(K)-브랜드 보호 기반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와 우리나라와의 상호 간 무역 및 교류 증진이 더욱 활성화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또한, 향후 교육 수료국가별 지식재산권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이번 교육의 효과가 지속적,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교육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 연결망(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아세안 국가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진출 기업들에 대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 지재권 교육을 이용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연결망(네트워크)을 유지·강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호 교차 교육 등 인적 교류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 추진 배경**

- (배경) 한국협력재단(KOICA)이 주관하는 글로벌 연수사업의 과제를 맡아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가 공동으로 운영
  - \* '20~'22년 3개년간 사업 수행, 예산은 3년간 10억원
- (목적)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 속에서도 성장잠재력이 높으며 한국과의 교역량이 상위권에 속하는 ASEAN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통한 협력이 필요
  - \* 아세안과의 교역량: '21년 1,765억\$로 중국에 이어 교역량 2위에 해당

**□ 과정 주요 내용**

- (과정명) ASEAN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 \* (영문명) Capacity Building Project for the Creation,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ASEAN
- (일시/장소) 2022. 8. 29.(월)~9.8.(목)[9일] / 실시간 온라인 과정
- (참가규모) 총 7개국 20명
- 주요 교육내용
  - IP 창출, 활용, 보호 등 기본 교육
  - 한국 특허청의 IP-ODA, 국제기구(WIPO)와의 협력 현황
  - 한국과 ASEAN 국가의 IP 인프라 현황 비교 및 방향성 도출
  - ASEAN IP 조화 방안
  - 한국의 IP 콘텐츠 및 교육 과정 공유
  - IP 가치평가, IP금융, IP 사업화
  - 위조상품 단속, 상표 지리적 표시, 전통지식의 법적 보호 등